

‘빼앗긴 이름’에서 ‘잃어버린 이름’까지

자신의 작품 20년만에 재번역한 재미작가 김은국씨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제목의 「잃어버린 이름」(Lost Names, 을유문화사)이 얼마전 재미작가인 김은국씨(59) 본인에 의해 다시 번역출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소설 「순교자」(The Martyred)를 통해 신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고뇌와 의혹을 실존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던 김은국씨가 이 소설을 쓴 것은 약 20여년 전. 국내에는 미국서 발표된 다음해 「빼앗긴 이름」(도정일 옮김 시사영어사, 70)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됐다.

소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인 1932년, 어머니가 강보에 싸인 아기를 안고 일제탄압을 피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향하는 황혼 무렵의 회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향인 평양 근처로 돌아와 그곳 국민학교에 들어간 소년은 일제의 온갖 불의와 탄압을 보면서 저항정신을 키운다. 학예회 때 일본천황 예찬을 거부하는 극의 절정 끝에 해방은 찾아오고 소년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대열 앞에 우뚝 서게 된다.

창씨개명을 강요한 우울한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려야 했던 민족의 수난이 소년의 맑은 눈을 통해 서정적으로 묘사된 이 작품은 펄벅 여사에 의해 “한국을 소재로 해서 쓴 창작으로선 내가 여태 읽은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하다”고 극찬받은 바 있다. 첫 번역을 맡았던 도정일교수에 의하면 “사상적으로는 카뮈의 영향”과 “문투상으로는 헤밍웨이”를 닮은 간결하고도 압축된 문장이 전편의 투명한 정서를 절제하고 있다.

작가인 김은국씨 스스로 “한국 최고급의



김은국씨

번역가”로 꼽는 도정일씨에 의해 “거의 완벽한”번역으로 나왔던 「빼앗긴 이름」을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한 것은 “작가의 뜻을 온전히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김은국씨의 오랜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김은국씨에 있어 「빼앗긴」과 「잃어버린」의 차이는 작품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것」과의 사이에는 실제적 차이나 심리적·정신적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고, 궁극적으로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점이 있게 된다.(...) 「잃어버린 것」으로 할 때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된다. 내가 명정하게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악몽」에서 깨어나야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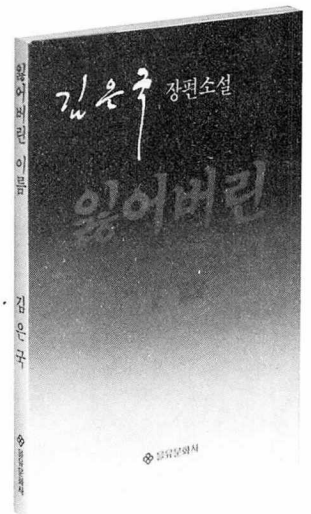
한편 첫 번역서 제목이 「빼앗긴 이름」으로 결정된 데에는 다소 오해의 여지가 끼어든 듯

하다. 도정일교수에 의하면 번역할 당시 저작권대리인이 전한 ‘작가의 뜻’에 따라 ‘빼앗긴’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며, 작품의 뜻을 살리기 위해 본문에서나마 ‘I’가 주어일 때는 ‘잃어버린’으로, ‘We’가 주어일 때는 ‘빼앗긴’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작가의 뜻’이 잘못 전달된 셈인데, 어쨌든 첫 번역본이 절판된 상태에서 작가가 직접 재출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잃어버린 제목’을 되찾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은국씨가 집착한 ‘잃어버린’과 ‘빼앗긴’의 의미간격은 우리민족의 쓰라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만들게 한 근본원인에 대한 준엄한 자기반성에 대한 요구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역사적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역사의식이나 기억이 짧은” 데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이 “새로운 세대에 조금이라도 그 의식과 기억을 심어주고” 싶은 심정적 결실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20년 세월을 뛰어 다시 본 그의 작품은 열세살이라는 “소년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과도한 사상적 깊이”의 치열함이 오히려 이 시대에 신선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이 희미한 채, 나라를 빼앗기고 자기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언지도 모르고 사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다.

“직접 번역했다는 것은 과장”임을 고백했듯 이번의 책은 첫 번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가지 어색한 영문투를 정확한 우리말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 예컨대 ‘한국’ ‘한국인’을 당시 시대상황에 어울리는 ‘조선’ ‘조선



인’으로, 영문법상 흔히 나오는 He와 She를 자연스럽게 아버지, 할머니 등으로 옮겼다가 또는 영어로 표현될 수 없었던 ‘옛’ ‘팽과리’ 같은 고유사물에 대한 표현을 꼼꼼히 바로잡았다.

나라 밖에 있는 지 꽤 오래임에도 T·V, 신문과 저작권에이전시 활동 등을 통해 조국을 따라 해바라기한 덕분에 김은국씨의 운후한 얼굴은 젊은 세대에게도 아주 친숙하다. 일련의 재출간 작품을 통해 ‘글’과는 먼 거리에 있던 작가의 내면을 ‘독자’라는 위치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아무튼 반가운 일이다.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는 자유로움으로 “이젠 좀 조용히 살겠다”는 것이 부지런한 롬펜으로서 말하는 김은국씨의 생각이다. 국내 독자들은 내년쯤 「심판자」(The Innocent)의 새 번역서와 「잃어버린 이름」 후속편을 만나게 될 모양이다. —김지원 기자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 제작 대행 : ① 일손이 달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② 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 → 인화 → 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원고 은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 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한솔기획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997 FAX : 739-8791

